

# 정책분석과 동향

2023년도 보건복지 정책 국제 회의체의 주요 논의 내용과 과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23년도 보건복지 정책 국제 회의체의 주요 논의 내용과 과제<sup>1)</sup>

Analysis of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Agenda from Selected  
2023 International Meeting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

이 글에서는 2023년에 이루어진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의 보건복지 정책 관련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분석하여 핵심 주제를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 마련, 보건의료 체계의 회복력 강화, 보건복지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일상적 유행 시대의 사회정책 재편으로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정책 분야 주요 국제 회의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범지구적 유행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협력, 글로벌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공조체계 강화,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의 국내 보건복지 정책 어젠다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1 들어가며

세계화 추세에 따라 경제 위기, 인구 고령화, 불평등 심화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보건복지 쟁점들이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어 퍼져 나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국제적 공조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군사, 정치, 경제, 외교와 같은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어 왔던 주요 국제기구 및 다자 회의체에서 최근 보건복지 관련 정책 이슈들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류가 신종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고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경험을 한

1) 이 글은 신윤정, 김성아, 고든솔, 백주하, 박성연, 박수빈. (2023). 2023 글로벌 보건복지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후 선진국과 중저소득 국가 간 공고한 협력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국제 다자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은 향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차의로 체계 및 의약품 생산, 공급망 강화와 같은 보건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돌봄 서비스, 노동시장, 재정적 지원 등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화, 인공지능 등에 대응하는 정책적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다뤄 오던 주제뿐만 아니라 성평등, 성적 자기결정권 등 연관된 사회정책적 논쟁거리들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3년도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의 보건복지 관련 주요 회의체에서 논의된 의제와 동향을 분석하였다. G20 회의는 보건장관회의, 재무보건장관합동회의 및 관련 실무그룹회의가 포함된다. OECD 회의는 보건위원회,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사회정책작업반 회의가 포함된다. APEC 회의는 보건실무그룹회의, 아세안 회의는 아세안+3 및 한-아세안 보건개발회의, 생물학적 위협 완화 회의, 사회복지개발장관회의가 포함된다.

다음 절에서는 각 회의체의 개요와 특징을 소개한 후 올해 회의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주요 핵심 주제별로 나누어서 기술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

로 향후 보건복지 다자기구에서 한국의 주도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한다. 이 글의 분석과 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보건복지 정책의 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 2 보건복지 정책 국제 회의체의 개요

### 가. G20

G20(Group of Twenty)은 1999년 아시아발 금융위기 이후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국제경제 및 금융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출범한 협의체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국제금융 및 통화질서 수립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장관급 회의를 격상하여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정례화되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회원국은 주요 7개국(G7), 신흥시장 12개국 등 19개 국가와 유럽연합, 2023년 뉴델리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이 된 아프리카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에는 초청국과 여러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2023년 의장국은 인도였는데, 전 의장국 인도네시아, 차기 의장국 브라질과 함께 트로이카를 구성하며 협의체를 운영하였다.<sup>2)</sup> 정상회담은 통상 매년 하반기에 개최되며, 의장국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연초부터 재무 트랙(finance track)과 셰르파 트랙(sherpa track)<sup>3)</sup>을 나누어 각 분야 실무단

**[표 1] 2023년도 국제 회의체의 주요 의제: G20**

회의체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주요 의제
G20	제1차 보건실무그룹	2023. 1. 18~20. 인도 티루바난타푸람	- 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원헬스와 항생제 내성을 중점적으로 - 의약품 분야의 협력 강화: MCM1(의료대응물품-VTD2) 중심으로 -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보편적 건강 보장 강화를 위한 디지털헬스 혁신
	제2차 보건실무그룹	2023. 4. 17~19. 인도 고아	- 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원헬스와 항생제 내성을 중점적으로 - 의약품 분야의 협력 강화: MCM1(의료대응물품-VTD2) 중심으로 -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보편적 건강 보장 강화를 위한 디지털헬스 혁신
	제3차 보건실무그룹	2023. 6. 4~6. 인도 하이데라바드	- 보건 위기 상황의 예방·대비·대응 방안 - 제약·진단기기·치료제 협력체계 강화 방안 - 디지털헬스 협력 강화 방안
	보건장관회의	2023. 8. 17~19. 인도 간디나가르	- 보건 위기 상황의 예방·대비·대응 - 백신·치료제·진단기기 분야 협력 강화 - 디지털헬스 협력 강화
	제2차 재무·보건 합동	2023. 3. 20. 비대면 화상회의	- 재무보건 조정 플랫폼 준비 - G20 FEVR3(팬데믹 대비 경제적 취약성 및 위기 관리) 검토 -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개입 준비도 향상
	제3차 재무·보건 합동	2023. 6. 22. 비대면 화상회의	- 재무보건 조정 방안 - 팬데믹발 경제적 취약성 및 위험 관리 방안 - 대규모 팬데믹 대응 개입 준비도 향상 방안
	재무·보건장관 합동	2023. 8. 19. 인도 간디나가르	- G20 FEVR3(팬데믹 대비 경제적 취약성 및 위기 관리) - 팬데믹 대응 자금 조달 - 옵션 및 격차 분석

주: 1) MCM: Medical Counter Measurement.

2) VTD: Vaccines, Therapeutics, Diagnostics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3) FEVR: Framework for health, social and Economic Vulnerabilities and Risks.

자료: 신윤정 외. (2023). 2023 글로벌 보건복지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 p. 7.

(working group)과 회의를 개최하여 의제를 결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르파 트랙 내 보건 실무단 회의, 재무 트랙 내 재무·보건 합동회의(Joint Finance and Health Task Force) 및 G20 회원국의 지지를 통해 출범

한 팬데믹 펀드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2023년 G20 보건 분야 주요 의제는 1) 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2) 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 3) 디지털헬스 혁신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한 발표와 협이가 진행되었다.

2) 2023년 G20 뉴델리 정상회담 참가국 및 국제기구는 G20 회원국, 초청국 9개국(방글라데시, 이집트, 모리셔스,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오만, 싱가포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및 국제기구(국제연합,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3) G20 세르파 트랙은 보건, 디지털 경제, 에너지 전환, 환경·기후 지속가능성, 농업, 무역·투자, 개발, 교육, 고용, 관광, 반부패, 문화, 재난위험 경감 등 총 13개 실무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는 1961년에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회원국 간의 경제성장과 금융 안정

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따른 세계 무역 확대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증진코자 설립되었다.4) OECD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사회 직속 상임위원회 및 특

[표 2] 2023년도 국제 회의체의 주요 의제: OECD

회의체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주요 의제
OECD	제33차 보건위원회	2023. 7. 3~4. 프랑스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눈에 보는 보건 디지털헬스</li> <li>- 사이버 보안에 관한 패스트트랙 보고서</li> <li>- 환자보고지표(PaRIS1) 업데이트</li> <li>- 보건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li> <li>- 의약품 생산 체계의 보안</li> <li>- 콜롬비아의 보건 개혁 보고</li> <li>- 초과 사망률에 대한 최근 동향</li> <li>-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구축 모범 사례</li> </ul>
	제34차 보건위원회	2023. 7. 3~4. 프랑스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 보건장관회의의 업데이트</li> <li>- 환자보고지표 업데이트</li> <li>-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관한 패스트트랙 보고서</li> <li>- 의약품 생산 체계</li> <li>- 의약품 시장의 가격 투명성</li> <li>- 보건 지출 동향 - 조정 또는 긴축</li> <li>- 인공지능과 보건</li> <li>-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권고안</li> </ul>
	제143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	2023. 4. 5~6. 프랑스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및 사회적 변화</li> <li>- 청년 정책</li> <li>- 탄소중립 전환과 노동시장의 개념적 프레임워크</li> <li>- 성별 임금 격차 보고</li> <li>- 원자력기구(NEA2) 성별 균형 이니셔티브</li> <li>- 재택근무, 성인지 및 직장별 정책</li> <li>- 장기요양돌봄</li> <li>- 사회정책 관련 장관회의</li> <li>- 녹색 전환에 따른 기술적 평가</li> <li>- 사전 학습 인식을 통한 업스킬링 경로 육성</li> <li>- 디지털 플랫폼 고용 및 업무 측정 관련 OECD-ILO-EC 핸드북</li> <li>- 인재 매력도 지표</li> <li>-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li> </ul>

4) 2023년도 기준 회원국은 총 38개국임. 지역별로 유럽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 뉴질랜드), 북미 2개국(미국, 캐나다), 중남미 4개국(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을 포함함.

표 2 (계속)

회의체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주요 의제
	제144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	2023. 10. 10~11. 프랑스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전환을 위한 노동 및 사회정책</li> <li>- 위험하거나 고된 직종을 위한 연금 제도</li> <li>-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및 노동시장 접근성</li> <li>-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생산적 성장의 회복</li> <li>- 웰빙 지식 교류 플랫폼을 통한 국가 간 학습 촉진</li> <li>- 일본의 노동 이주 리뷰</li> <li>- 인플레이션의 불균등한 영향</li> <li>- 사회정책 장관급 회의</li> </ul>
	제46차 사회정책작업반	2023. 4. 20~21. 프랑스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간 웰빙 지식 공유 플랫폼 활용 및 촉진</li> <li>- 통합적 아동복지 정책: 접근법 및 과제</li> <li>- 웰빙과 정신 건강</li> <li>- 일본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측정 보고</li> <li>- 청년 기회 재임을 위한 사회보장</li> <li>- 2022 사회적 위험 조사 결과 보고</li> <li>- 웰빙 관점에서의 건축 환경</li> <li>- 노숙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초안</li> </ul>
	제47차 사회정책작업반	2023. 11. 30~12. 1. 프랑스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사회정책장관회의</li> <li>- 사회적 보호의 미래: 업데이트</li> <li>- 재정 부족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 사회보호재정 할당 정책 요약</li> <li>- 노숙인 퇴치를 위한 정책 도구</li> <li>- 양성평등을 위한 투명한 동일 임금 정책</li> <li>- 미국 성소수자 평등 확대를 위한 경제적 사례</li> <li>- 필수 서비스 접근의 지역적 불평등</li> <li>- 유럽의 차별 현황과 효과</li> <li>-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li> <li>- 핀란드 웰빙 상태 평가</li> </ul>

주: 1) PaRIS: Patient-Reported Indicator Survey.

2)NEA: Nuclear Energy Agency.

자료: 신윤정 외. (2023). 2023 글로벌 보건복지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 p. 8.

별기구, 사무국, 그리고 주요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으로 구성 및 운영된다. 이 글에서는 OECD 주요 분야별 사무국 중 고용노동사회국하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와 보건위원회(HC: Health Committee)에서 매년 두 차례 개최하는 정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는 고용, 노동, 사회 및 보건 분야의 세계 동향 및 회원국 동향 분석과 고용노동사회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 검토 및 주요 안건(우선시되는 주제)에 관한

정책 대화로 구성된다. 지난해 보건위원회 회의에서는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정책,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2024년도 보건장관급 회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서는 장기 요양 돌봄, OECD 회원국의 소득 불평등, 2025년도 사회정책 장관급 회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사회정책 작업반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보장 정책 동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 다. 아시아 지역 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1989년 11월 캔버

라에서 출범한 협의체로, 초기 회원국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총 12개국이었으나 이후 회원국이 증가하여 2023년

**[표 3] 2023년도 국제 회의체의 주요 의제: 아시아 지역 회의**

회의체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주요 의제
APEC	제1차 보건실무그룹	2023. 2. 18~20. 미국 팜스프링스	- 생애주기 예방접종 - 원헬스 및 경제 - RHSC1, AHC2, HeSay3 현황 공유 - 팬데믹 대비를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정책 - 정신 건강 - 디지털헬스 정책 - 다분야 간 협력 사항
	제3차 보건실무그룹	2023. 8. 3~5. 미국 시애틀	- 제13차 APEC 보건·경제 고위급회의 선언문 초안 - 디지털헬스: 상호 운용성 및 사이버 보안 - 디지털헬스: 정신건강과 건강한 노화 - 원헬스 및 경제 - 기후변화와 건강 - APEC 2024: 페루의 보건 분야 우선 순위 - 젠더 및 건강 형평성 정책 대화 - 예방, 선별 및 치료를 통한 여성의 경제 참여 강화 - 여성의 건강 및 공평한 접근을 위한 관리 모델 및 모범 사례
	제13차 보건·경제 고위급	2023. 8. 6. 미국 시애틀	- 지속가능한 보건 재정 - RHSC1, AHC2, HeSay3 현황 공유 -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및 일차의료 라운드 테이블 - 보건·경제 고위급 선언문 채택
ASEAN	제17차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	2023. 5. 24~25. 비대면 화상회의	- 성주류화 및 사회적 포용을 통한 성평등 달성을 위한 아세안 협력 강화
	아세안+3, 한·아세안 보건개발고위급	2023. 6. 21~22 라오스 비엔티엔	- 아세안·한일중 보건복지 분야 협력 강화 및 교류 - 한·아세안 보건복지 분야 협력 강화 및 교류
	아세안 생물학적 위협 완화 회의	2023. 9. 25~27. 인도네시아 발리	- 아세안 생물학적 위협 완화 프로그램 사업 내용 공유 및 회원국 간 협력 강화 - 생애주기 예방접종, 원헬스 및 경제, RHSC1, AHC2, HeSay3, 팬데믹 대비를 위한 보건시스템 강화 정책, 정신 건강, 디지털 헬스 정책, 다분야 간 협력 사항
	제18차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	2023. 11. 16. 베트남 하롱시티	-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사회 보호

주: 1) RHSC: 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규제조정운영위원회).

2) AHC: APEC Harmonization Center(APEC 조정 센터).

3) HeSay: APEC Health Sciences Academy(APEC 보건과학 아카데미).

자료: 신윤정 외. (2023). 2023 글로벌 보건복지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 p. 9.

현재 21개 회원국(economies)이 있다. 2003년 10월 APEC은 무역 및 안보 등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관련 위협에 대해 협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보건 태스크포스(health task force)를 설립하였는데, 2007년에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으로 격상되었다. APEC 보건실무그룹의 임무는 역내 무역, 안보, 포용적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파트너 간 협력이다. 보건 관련 위협을 완화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 및 유지를 위해 보건 시스템의 효율성, 대응력,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APEC 보건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예방접종, 원헬스, 정신건강, 디지털헬스, 기후 변화, 젠더 및 건강 형평성 등을 주제로 협의하였는데, 국제 보건 시스템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주제와 역내 보건 상황에 필요한 의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아세안으로 약칭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회원국으로, 역내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분야에 관한 협의체이다. 한국은 1997년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04년에는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같은 시기에 제1차 아세안+3(한국, 일본, 중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 분야에서 성주류화와 사회적 포용을 통한 성평등 달성에 관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역내 협력 사업들의 현황 및 이에 대한 한·일·중의 지원 방향에 관한 협의회가 주로 논의되었다.

### 3 2023년 보건복지 정책 국제 회의체의 주요 내용

이 글은 앞서 제시한 보건복지 관련 국제 회의체에서 논의된 의제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23년 보건복지 정책 국제 회의체의 핵심 주제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 마련, ② 보건의료 체계의 회복력 강화, ③ 보건복지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④ 기후변화 대응, ⑤ 감염병 일상적 유행 시대의 사회정책 재편.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따라 각 회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기술하고,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 국제 회의체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 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 마련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대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 정책 국제 회의체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G20 회의를 중심으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 구축



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G20 보건장관회의에서는 향후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응하려면 지역 및 국제 수준의 글로벌 보건 체계(GHA: Global Health Architecture)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HEPPR(Health Emergencies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간의 보건 환경이 자연 및 동물 등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 최근 발생하는 감염병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원헬스와 항생제 내성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감시체계를 기초로 HEPPR을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지역·국제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4자 협력 기구(FAO<sup>5)</sup>, WOA<sup>6)</sup>, UNEP<sup>7)</sup>, WHO<sup>8)</sup>) 등 국제적 동반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G20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중단간 국제적 의료 대응 물품(MCMs: Medical Counter Measures) 조정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의 의료 대응 물품 제조·대응 역량 수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향후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 대응 물품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 보장과 신속한 생산이 필요하다. 이에 국제적 의료 대응 물품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저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물질적·기술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이들 국가의 재정 및 인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준비하고 있는 팬데믹 조약과 영구적인 국제적 의료 대응 물품 조정 체계를 통해 의료 대응 물품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적인 연구·개발 및 제조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 회의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팬데믹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취약성과 위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회복 탄력성과 준비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FEVR(Framework for Economic Vulnerability and Risks to Pandemic) 체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팬데믹 대응과 관련한 재정적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의 중복성 완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기금을 마련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서지 파이낸싱(Surge financing)’ 개념을 제안하였다. 서지 파이낸싱은 보건 위기 발생 시 신속한 기금을 마련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교훈을 통해서 팬데믹 대응에는 약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발생 가능한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서지 파이낸싱을 위해서는 감염의 세계적 유행 직후 최소 300억 달러의 자금 마

5)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6)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7)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8)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련, 자금 흐름 조정을 위해 사전에 합의된 접근 방법, 자금 관리 및 보고를 위한 표준 운영 절차, 기존 체계를 보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나. 보건의료 체계의 회복력 강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향후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체계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보건의료 체계의 회복력이란 팬데믹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보건의료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바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보건의료 체계가 강한 회복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체계와 보편적 건강 보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APEC 회의에서는 감염병의 범지구적 유행 이후 각 국가의 팬데믹 대응 능력을 일차의료 시스템 수준, 의료 물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 질병이 발생했을 때의 역내 협력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대응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에는 보건 인력 양성·동원, 보편적 건강 보장과 보건 안보 강화, 디지털헬스 및 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체계, 의료 대응 물품 연구·개발 및 생산 제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회원 국가는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와 통합적 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세안 회의에서는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과 회복 탄력적인 보건 안보 구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세안 지역에 특화된 연대 구상을 기초로 한국과 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회원 국가들은 2030년까지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을 목표로 한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한국의 우수한 보건 정책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건강 정책 데이터 수집, 건강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지털화, 보편적 건강 보장 지원 서비스 패키지 구축, 전자 의료 기록 데이터베이스 분석, 정신건강 관련 협력 등이 포함된다.

선진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OECD 보건위원회에서는 2024년 보건장관회의의 주제를 ‘더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으로 하고, 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 효과적인 정책이 주는 교훈’, 세부 주제별 안건으로 ‘공공 보건에 대한 지원: 더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을 위한 건강한 국민’을 제시하는 등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차의료에 대한 재원 조달을 신속 처리(“Fast track”)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일차의료와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약품 생산 체계와 의약품 시장의 가격 투명성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 다. 보건복지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이후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모든 국제기구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G20 회의에서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 전달체계 강화와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을 위한 디지털헬스 혁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디지털헬스는 현재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술 및 정보 격차 등 적지 않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과 사람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다. 디지털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 디지털 플랫폼, 표준화, 상호 운용성이 요구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동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G20은 WHO와 함께 ‘범지구적 디지털 헬스 구상(GIDH: Global Initiative on Digital Health)’ 출범을 지지하였다. G20 국가들은 디지털헬스의 잠재력과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중저소득 국가 등 소외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포용하고 디지털 인프라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디지털 공공재의 개념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리더십 향상 및 역

량 강화 촉진, 상호 운용 가능한 국제 프레임워크 구축, 관리체계 통일, 개인정보 보호, 기존 체계와의 중복성 회피, 추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APEC에서도 디지털헬스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2020년에 디지털헬스작업반(DHSEG: Digital Health Sub-Working Group)을 출범시켰다. 코로나19로 촉진된 원격의료 활용 전환 국면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헬스 기술을 발전시켜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고, 아·태 지역의 보건 데이터 표준과 상호 운용성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각 국가는 디지털헬스 정책 및 상호 운용성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의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디지털헬스 현황과 운영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대만은 지속 가능한 디지털헬스 혁신 및 상호 운용성과 사이버 보안, 미국은 표준화, 인증제, 교환·교류, 조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 한국은 디지털헬스 적용을 통한 포용적이고 상호 연계된 보건 의료 시스템 사례, 필리핀은 원격의료 사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OECD 회의에서도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 활용에 대해 논의되었다. 보건위원회 회의에서는 디지털헬스,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및 보건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과 각 국가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회의에서는 디지털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과 같이 신기술을 사회 서비스 제공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라. 기후 변화 대응

G20과 APEC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하였다. APEC은 기후변화에 따라 건강 위험도, 취약성, 질병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취약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탄소 배출량 감소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G20은 기후변화가 감염 위험성을 높여 보건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야기할 것으로 보아 이를 팬데믹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제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OECD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는 녹색 전환 및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 시장과 사회정책의 공정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탄소중립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기후변화 완화 정책 시행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관련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 및 사회 정책, 극한 기후 현상 및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에 대한 국가별 사례를 논의하였다. 각 국가는 자국이 추진하는 탄소 배출량 감소와 기후변화 회복력 달성, 녹색 전환에 따른 노동 및 사회 정책 변화 사례를 공유하고, 공정한 전환의 개념과 노동의 연계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녹색 일자리에 대한 수요 예측, 기술 혁신, 공공 고용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마. 감염병 일상적 유행 시대의 사회정책 재편

감염병 일상적 유행 시대의 사회정책 재편 방향에 대해 APEC과 아세안 회의에서는 젠더, 성평등, 고령화 등에 대한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선진 국가 중심의 OECD 회의에서는 다변화된 사회가 경험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되었다.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사회복지개발 고위급 회의 이행 계획(2021~25)’에 기반하여 아동, 장애인, 노인, 기타 주요 분야의 사회복지 개발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련한 발의와 사업 내용을 공유하였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아세안 각 국가의 성주류화 및 사회적 포용을 통한 성평등 관련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고, 각국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APEC 회의에서는 젠더 및 건강 형평성을 주요한 주제로 삼고 젠더 기반 건강 격차, 여성의 암 부담 완화, 감염병 예방 임상 및 치료를 통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강화, 보건 분야 여성의 기여도 재평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와 사회정책작업반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인플레이션의 불균등한 영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및 사회 변화, 생산적 성장의 회복), 소득 보장(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위험하거나 고된 직종의 종사자를 위한 연금 제도), 양성평등(성별 임금 격차, 재택근무·성인지 및 직장 정책), 청년(청년 정책, 청년 기회 지원을 위한 사회 보장), 웰빙(웰빙 지식 교류 플

랫폼, 웰빙과 정신 건강), 노인(장기 요양 돌봄), 빈곤·자활(노숙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초안) 의제에 대해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각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 4 나가며

앞서 기술한 보건복지 정책 관련 국제 회의체의 최근 논의 경향을 보면 WHO, OECD 등 국제기구가 주요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G20 등 다자 회의체에서 국제 협력 모형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아세안과 APEC이 실제적인 국제협력사업을 도모하는 구조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 관련 주요 국제 회의체에서 논의되는 의제 발굴과 선정, 협력 모형 개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수립,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통합적·체계적으로 참여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 대응체계 구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G20은 HEPPR, MCMs, GIDH 마련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의료 대응 물품의 형평성 있는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WHO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되어 중저소득 국가가 백신 제조 및 생산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WHO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범지구적인 의료 대응 물품의 생산과 공급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둘째, 미래 팬데믹 위기에 대비해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건강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의체에서 일차의료 및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한 경험이 있으므로 한국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저소득 국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대안으로 디지털헬스의 공공 인프라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중저소득 국가가 디지털헬스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염병 일상적 유행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이다.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선진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각 국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주요한 어젠다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저소득 국가들도 선진 국가들이 직면한 사회적 쟁점들을 머지않은 장래에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한국의 정책 경험을 중저소득 국가들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내 보건복지 정책 대응 전략을 세울 때

기후변화와 디지털화를 주요 정책 어젠다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을 비롯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혁명과 디지털화가 제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관련 질병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건강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국내 현황을 파악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 디지털화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향상시켜 특히 인구 감소 혹은 취약 지역에 필수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강화시키는 주요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선진 국가의 우수 정책 사례를 한국에 도입함과 동시에 중저소득 국가의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신윤정, 김성아, 고든솔, 백주하, 박성연, 박수빈.  
(2023). **2023 글로벌 보건복지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nalysis of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Agenda from Selected 2023 International Meetings

Shin, Yoon-Je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report analyzes discussions held in 2013 at G20, OECD, APEC, and ASEAN meetings on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issues. The main agenda items that emerged include: building a global response system for pandemic preparedness;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healthcare system; utilizing digital technologies in health and welfare policie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reshaping social policies in the endemic era. In order to strengthen Korea's global leadership in major international meetings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polici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operate in building a global pandemic response system; help to expand universal health coverage from a global perspective; put climate change and digitalization at the top of the national health and welfare policy agenda; and establ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response to emerging social risks.